

내가 생각하는 글쓰기의 의미

이상면*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 01 학번. 제2회 우수리포트 공모대회에서 「이탈리아 남부와 한국 호남의 지역주의 비교 고찰: '심리적 지역주의'의 심화 정도와 그에 따른 지역주의 선도 주체」(『서구 정치론』 리포트, 담당교수 정병기)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어떤 대상에 대해 객관적인 정의(定義)를 내리기는 쉽지만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무엇이 의미를 판단하는 행위는 늘 가변적인 과정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의미는 개인차가 있으며 동일한 역시 시간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100만 원에 대한 의미는 같을 수 없고 또한 그들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그 의미는 각기 달라질 것이다. '글쓰기'라는 대상 역시 이러한 관점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소설가와 논설가가 글쓰기에 부여하는 의미는 다를 확률이 높으며 같은 장르의 글을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의미의 차이는 항상 있을 수 있다. 글쓰기에 대한 필자의 생각 역시 남들과는 똑같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되새기는 과정이 표면상 큰 가치가 없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최소한 필자 스스로에게 '불변하는' 글쓰기의 의미를 정립하는 일은 지적인 의미에서 개인적 성숙의 계기가 될 것이다.

글쓰기의 사전적 정의는 '생각이나 사실 따위를 글로 써서 표현하는 일'이다. 생각과 사실 중 어떤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는 글쓴이의 의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글쓰기가 한 개인을 '표현하는 과정'이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개인의 감정을 드러내는 개인이 인식한 사건을 보도하든 그것들은 모두 표현이라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거의 매일 글쓰기를 통해 표현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냉장고 앞에 붙이는 메모 한 장과 친구에게 보내는 문자 메시지 한 통 등의 사소한 것에서부터 과제로 주어진 리포트를 작성하는 나뉠대로 공적인 일들까지 우리는 글로 늘 어떤 것들을 표현하고 사는 것이다. 물론 구두 언어인 말(言) 역시 인간 사회에서 표현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수단이다. 하지만 글을 통해서만 개인의 표현이 좀더 정제되고 명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말보다 더 세련된 자기 전달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명한 문인은 글쓰기가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옷을 입히고 화장을 하는 단계'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그 무엇인가를 좀더 구체화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필자가 생각하는 글쓰기의 의미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자기 표현을 위한 수단으로써의 글쓰기'가 좀더 효과적이고 발전 지향적인 성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글쓰기를 통한 타인과의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 외부적인 표현은 늘 그 표현의 상대를 직·간접적으로 전제하게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그 대상은 자신을 제외한 나의 글을 읽는 다른 모든 사람이 된다. 물론 나 자신 스스로가 그 표현의 상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때때로 일기와 같은 사적인 글쓰기 활동을 한다. 그것은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이 또 다른 나와 격의 없이 진지하게 대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글쓰기라는 자기 표현의 객체는 다른 사람들과 나 자신 모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객체들은 글로 나타난 글쓴이의 감정과 생각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글에 대해 공감을 하거나 이견을 보이는 등의 다양한 '반응'을 표명할 것이다. 그런데 글을 읽는 사람들의 여러 반응은 글쓴이에게 반드시 전달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글을 쓴 사람'은 '글'이라는 수단을 통해 '글을 읽을 객체들'과 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대화라는 것이 말로 행해지건 상대방의 또 다른 글로 이루어지건 그 방법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다만 객체들의 반응을 통해 글쓴이가 자신의 글에 대해 최소한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충분하다. 그

것을 통해 글쓰이는 사고와 관점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어떤 의미에서든지 다음에는 좀더 좋은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글쓰기와 그 의미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오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글쓰기는 순수한 의미에서 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었다. 그 당시에 필자에게 있어 '좋은 글'을 쓴다는 것은 곧 '좋은 성적'과 '좋은 상'을 탄다는 것 이상의 가치를 가지지 못했다. 자기 표현과 거리가 먼 글쓰기는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의 진실한 대화도 불가능하게 하였다. 하지만 대학은 나에게 글쓰기란 진지한 자기 표현의 수단임을 가르쳐주었다. 또한 가식 없이 자기를 표현하는 글쓰기는 필자로 하여금 타인들과 다양한 생각과 많은 감정을 교류할 수 있게도 해주었다. 그 과정을 통해 필자의 생각과 글은 조금씩 더 깊어지고 세련되어질 수 있었다. 이 모두 것들이 글쓰기를 통해 시작되었다는 필자의 믿음은 앞으로도 '불변'할 것이다. 그리고 글을 한 편씩 더 쓸수록 그 믿음은 늘 필자를 등지지 않으리라 확신한다. 9